

ADHD 아동의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최혜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임숙희

건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과

김교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긍정심리학적 접근으로 조망하여 ADHD 아동의 독특한 강점으로 창의성을 도출하고 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이다. 강점 개발 기법과 이야기 치료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성격, 사고 및 동기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ADHD 증상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D시의 ADHD 아동 41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n=21), 인지행동 프로그램(n=20)을 실시하였으며 8회기의 프로그램 실시 후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의 향상 정도와 ADHD의 증상감소 정도를 분석하였다. 공변량 분석 결과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에서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보다 창의성 및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으나 ADHD 증상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창의성,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ADHD 아동,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발췌,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김교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E-mail: kyoheonk@cnu.ac.kr

최근 한국에서는 수업시간에 산만하거나 교실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과잉 활동적 행동으로 학교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아동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아동의 상당수가 부주의(inattention), 과잉행동(hyperactivity)과 충동성(compulsivity)을 주요 증상으로 보이는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로 진단될 수 있다(APA, 2013)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19개 초·중·고교 학생 2,672명을 대상으로 ADHD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 및 청소년의 13.2%가 ADHD로 진단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4개 초등학교 아동 중 8.6%, 즉, 한 학급당 평균 3~4명이 ADHD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복, 이상훈, 이효신, 1996). 또한 김봉년, 김형인, 조수철, 신민섭(2012)의 서울지역 50개교 1만1,758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초등학교생의 3.8%가 ADHD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일반 아동의 ADHD 유병률이 3%에서 12%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미국질병관리 및 예방 센터의 조사 결과, 4세에서 17세 아동 중 ADHD로 진단받은 아동이 2003년 7.8%에서 2007년 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loom & Cohen, 2011).

ADHD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ADHD 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약물치료, 인지행동, 사회기술훈련,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ADHD 아동의 문제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신현균, 2012; 심혜숙, 박정미, 2003; 하은혜, 오경자, 1992)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훈련 및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박종규, 오경자, 2004).

하지만 ADHD 아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ADHD가 가지고 있는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의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ADHD 아동의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이며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제한점이 있다.

모든 인간은 부정적 요소만큼이나 긍정적인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강점보다는 문제가 더 먼저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그들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훨씬 적어지게 된다(정진희, 2007). 이에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인간의 본성 이해를 위한 탐구에 있어 지나치게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 대한 중시를 강조하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긍정심리학적 입장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감소시키기보다 강점을 증진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의 성장이나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부정성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한다(Gilman, Huebner, & Furlong, 2009).

최근 ADHD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발달 수준에 비해 비정상적일 정도로 활동적이고 주의유지와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갖는 ADHD의 취약성보다는 강점에 기반한 입장에서 ADHD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Nielsen, 2002; Nielson &

Higgins, 2005). 또한 연구들은 문제 개선을 위해 부정성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Gilman, Huebner, & Furiong, 2009). 예를 들면, ADHD 아동은 주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 쉽게 산만해지는 취약성을 갖고 있지만 이들에게 사고의 명료한 목적을 갖게 하고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전략을 훈련하면 이들의 산만한 사고는 창의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ADHD의 문제를 재능(gifted)으로 보고 ADHD의 강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Baum & Olenchak, 2002; Nielsen, 2002; Nielsen & Higgins, 2005; Reis & Ruban, 2005) 대표적으로 Lara(2011)는 ADHD 아동의 창의성, 열정, 정서적 민감성, 직관적인 대인관계 등에 주목했으며 Leroux와 Levitt-Perlama(2000)은 ADHD 아동의 강점으로 리더십, 창의성, 예술성을 보고하였고 Davis(1998)는 ADHD 아동이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다수의 연구에서 창의성은 ADHD 아동이 가진 강점으로 보고되고 있다. ADHD의 충동성은 순간적으로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순기능을 갖는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Abraham, Windmann, Siefen, Daum, & Guentkun(2006)의 연구에서는 충동성과 창의성, 유머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Honos-Webb(2005)은 ADHD의 주의산만성, 낮은 충동 조절, 정서적 민감성 이면에 창의적이고 높은 에너지와 직관력이라는 강점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Weiss(1997)는 ADHD 아동이 충동성이 높고 주의가 쉽게 분산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임기응변에 능하며 새로운 자극에 두려움 없이 접근하며 생각이나 행동이 기발하고 변화에

민감한 특성, 즉 창의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Lara(2005)는 ADHD 아동이 창의적이고 정서적 민감성, 대인관계에서의 직관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Robert(2008)는 ADHD 아동이 자신이 관심 없는 일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며 과잉활동적이고 불안정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며 감정 기복도 심하지만 상상을 잘 하고 호기심이 있으며 독립적, 개방적이며 직관적인 특징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일반아동과 ADHD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ADHD 아동을 대상으로 도형 검사(TTCT)를 실시한 결과 ADHD 아동의 창의성이 일반 아동의 창의성보다 높았으며 유창성과 독창성, 정교성 역시 일반아동에 비해 ADHD 아동이 유의하게 높았다(Gollmar, 2000). 조나리(2011)의 연구에서도 TTCT를 활용하여 ADHD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한 결과 ADHD 아동의 창의성 중 독창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수경(2006)의 연구에서는 ADHD 성향의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창의성, 독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 연구들은 ADHD 아동이 새롭고 독특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창의성이 우수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ADHD와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ADHD 아동이 보이는 충동성을 즉흥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주의력 결핍을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문제에 흥미를 갖고 공상을 즐기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하며 과잉행동 역시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Cramond, 1994).

따라서 주의산만함, 과잉활동성, 충동성 등 ADHD의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ADHD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주요 강점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은 ADHD 아동의 문제해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창의성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신념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조승우, 김아영, 1998).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비교적 일관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며(배진수, 이영만, 2000; 성은현, 2005; Cropley, 2001; Piirto, 1998) 창의적인 청소년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분석력, 정보 활용도가 뛰어나 문제해결에 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아, 정옥분, 정순화, 2007). 즉, 창의성 강화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ADHD 아동은 학습에서 곤란을 자주 겪고 대인관계에서도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 낮은 성취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된다(김평선, 2004,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특히, 기존의 증상 중심의 ADHD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ADHD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아동에게 낙인의 문제점을 유발하며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Lara, 2005). 따라서 아동의 ADHD 치료에 있어서 증상 감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아동이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ADHD 아동을 위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앞선 예비연구로서, 긍정심리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 프로그램이 창의성 증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증진과 ADHD 증상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ADHD 아동의 창의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 아동과 ADHD 아동의 특성을 비교하여 창의성을 밝히거나 질적연구를 통해 특성을 살펴내는데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의 아동을 위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에 활용되는 인지행동 프로그램과의 비교를 통해 그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해서 창의성이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해서 자기효능감이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해서 ADHD 증상이 더 많이 감소될 것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D시 소재의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본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4개 기관의 신청을 받았으며 각 기관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352명을 대상으로 교사용 단축형 코너스 평가척도(Abbreviated Conners Rating Scale; ACRS)를 실시하여 아동을 선발하였다. 이 때, 각 학급 담임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너스 척도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문제 여부를 판단하는 절단점인 13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그 후, 다시 임상심리전문가가 개별 진단을 통해 ADHD 여부를 재확인 한 후, 최종적으로 부모와 아동이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총 41명의 남·녀 학생을 선발하였다.

집단 간, 연령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역과 연령을 고려하여 총 4집단을 구성한 후, 처치집단에는 A, B 집단(S구, D구의 각각 1기관, 21명), 비교집단에는 C, D 집단(S구, D구의 각각 1기관, 20명)을 배정하였다. 참여를 신청한 41명의 학생 모두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완수하고 사전 및 사후 검사에 모두 응답하였다. 두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너스 척도를 통해 ADHD 증상의 사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 시점의 ADHD 증상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771$, $df=39$, $p>.05$). 평균 연령은 처치집단의 경우 11.76세($SD=.70$), 비교집단의 경우 12.15세($SD=.81$)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64$, $df=39$, $p>.05$).

프로그램 개발

처치집단의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적절하고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한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1명의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아래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다. 창의성 이론들과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창의적 성격(최선을 다함, 사회적 책임감, 개방성, 독립성), 창의적 사고(상상력, 환상, 확산적 수렴적 사고, 창의적 정보), 창의적 동기(내재적 동기, 호기심, 근면, 용기)의 증진 요소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창의적 성격 훈련과 통합적 접근의 창의적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한 연구 등을 따랐으며(부지영, 2000; 이인순, 1987; Csikszentmihalyi, 1988), 구체적인 회기 구성은 기존 ADHD 인지행동 프로그램과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안상일, 2004)을 참고하였다. 주기법은 SMART접근법(White & Epston, 1990)을 활용하였는데 SMART 접근법은 이야기 기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ADHD 치료 프로그램으로 인간은 경험을 통해 형성한 이야기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둔다(Clay, 1999; Metcalf, 1999; White & Epston, 1990). 이야기를 통하여 아동이 자신과 문제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 기술, 재능 등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은 전체 8회기로 1회기는 프로그램 전반적 설명과 동기부여, 2회기는 ADHD와 나를 분리하기, 3회기는 ADHD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통한 나의 재구성, 4회기는 창의적 인물탐색을 통한 사고훈련, 5회기는 실제

표 1.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요

회기	대영역	하위영역
1	나와 창의적 강점	· 창의성과 강점에 대한 이해와 동기 부여
2	나와 ADHD	· 나와 ADHD증상을 분리시킴으로써 자기수용 증진
3	나의 특별함을 알아차리기	· ADHD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알아차림
4	창의성	· 나의 약점에 대한 재구성과 나에 대한 강점 중 창의적 사고 훈련
5	창의적 성격	· 개방성, 최선을 다함, 독립심 훈련
6	창의적 동기	· 내재적 동기, 용기, 호기심, 모험심 훈련
7	창의성 표현	· 나를 표현해보기
8	긍정적으로 보기	·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기

를 통한 이야기 만들기 6회기는 발명을 통한 창의성 이해, 7회기는 친구와 나의 특징표현, 8회기는 변화된 내 모습 관찰로 이루어져 있다. 한 회기 당 40분의 8회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회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비교 집단의 인지행동 프로그램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비교집단에서는 통상적인 처치(Treatment as usual; TAU)를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ADHD 아

동에게 시행되고 있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의 정신과에서 개발하여 국내의 ADHD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McDermott(2000)이 개발한 인지행동 접근을 수정, 보완해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행동 계획하기,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술 개발하기, 주의지속 시간 늘리기, 긍정적으로 자기지도하기, 부정적인 사고 확인하고 반박하기, 최선의 해결방법 생각하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기 수와 진행 시간은

표 2. 인지행동 프로그램 개요

회기	대영역	하위영역
1	나와 산만함	· 목표를 설정하고 산만함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
2		·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3	산만함을 조직하기	· 문제를 조직화, 계획화 하기
4		· 산만성을 낮추는 훈련
5	적응적 사고하기	· 자동적인 사고 개선할 수 있는 훈련
6		· 사고 오류에 이름 붙이기
7	합리적 반응 개발	· 이야기를 통한 합리적인 사고하기
8	미루는 행동 적용	· 부정적 결과와 행동 문제 해결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8회기의 30-40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표 2).

측정 도구

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에 아래의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교사용 단축형 Conners 평가 척도

ADHD 증상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Goyette, Conners, Ulrich(1978)가 10문항으로 축약한 것을 오경자 등(1989)이 번안한 교사용 단축형 Conners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DHD의 주요 증상이 되는 행동적 특징들을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3점을 기준으로 ADHD 아동을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92이었다(이전 연구 .82).

초등학생용 창의성 검사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인수, 이종구(2004)의 창의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창의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창의적 성격, 창의적 사고, 동기를 범주로 추출하였고 하위요인으로 철저함과 최선을 다함, 사회적 책임감, 개방성, 독립성, 독단적, 충동적, 이기적 성향, 상상력과 환상, 확산적 및 수렴적 사고, 창의적 사고능력, 내재적 동기, 호기심과 다양한 관심, 근면, 그리고 용기 등 12가지 요인들로 구성되었다.

총 124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각 문항에 대해 5단계로 응답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78(이전 연구 .73)이었

으며 채점은 한국 가이던스프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실행하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1997)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한혜진(2002)이 초등학생에게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1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5문항의 세 가지 요인의 총 2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이전연구 .86)

연구절차

처치집단은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8회기(1주당 1회, 1회당 30분~40분) 실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2013년 8월부터 10월 까지 주당 1회(30~40분), 총 8회를 진행하였다. 모든 학생이 사전과 사후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탈락자는 없었다.

처치집단 및 비교집단의 프로그램 실시는 3년 이상의 ADHD 아동의 심리치료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학 석사 수료 전공생 1인이 주 진행을 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과 심리학 전공 학부생이 보조진행자로서 각 집단별로 2인씩 참여하였다.

자료분석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에 대해서 Shapiro-Wilk 검증을 통해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ADHD증상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정규성 가

정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고 프로그램 처치 조건(처치집단 대 비교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를 실시했으며 ADHD 증상은 비모수분석 기법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했다. 모든 통계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DHD 아동보다 처치집단 프로그램인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ADHD 아동의 사후 시점 창의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F(1,38)=11.80, p<.001$ (표 3, 4)

각 집단 별 시점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처치집단에서는 사전에 비해 프로그램 처치 후 창의성이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t(20)=-3.87, p<.01$) 비교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19)=-.09, p=ns$)

결 과

프로그램 처치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실시 후 창의성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 집단 프로그램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처치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효능감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분석 결과, 비교 집단 프로그램인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ADHD 아동보다 처치집단 프로그램인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ADHD 아동의 사후

표 3. 집단과 시점별 창의성의 평균(표준편차)

	처치집단($n=21$)		비교집단($n=20$)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창의성	43.42(12.97)	52.57(10.42)	43.30(12.62)	43.45(13.37)

표 4. 프로그램 참여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N=41$)

		SS	df	MS	F	η^2
사후 창의성 전체	사전 창의성 전체	2877.50	1	2877.50	40.61***	.52
	집단	836.23	1	836.23	11.80**	.24
	오차	2692.58	38	70.85		
	전체	101367.00	41			

*** $p<.000$, ** $p<.01$

표 5. 집단과 시점별 자기효능감의 평균(표준편차)

자기 효능감	처치집단(n=21)		비교집단(n=20)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SD)	M(SD)	M(SD)	M(SD)
	57.66(8.80)	65.57(8.82)	58.35(7.74)	61.85(4.81)

표 6. 프로그램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N=41)

		SS	df	MS	F	η^2
사후 자기 효능감	사전자기효능감	506.09	1	506.09	12.89***	.25
	집단	165.06	1	165.06	4.20*	.10
	오차	1491.60	38	39.25		
	전체	168798.00	41			

*** $p < .000$, * $p < .05$

시점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F(1,38)=4.20, p<.047$ (표 5, 6).

또한 각 집단 별 시점의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처치집단에서는 사전에 비해 프로그램 처치 후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t(20) = -4.46, p < .001$) 비교집단에서는 보다 관대한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t(19) = -2.11, p < .05$).

프로그램 처치가 ADHD증상에 미치는 효과

ADHD증상이 정규성을 가정할 수 없어 비모수기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ADHD 증상에서의 차이가 있는지를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집단의 경우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 전·후 값의 차가 음인 순위의 합은 190이었으며 양인 순위의 합은 0이었다. 그 평균순위의 차이를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접근시킨 결과 유의확률

은 .000으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은 ADHD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집단인 인지행동 프로그램 집단의 경우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 전·후 값의 차가 음인 순위의 합은 131이었으며 양인 순위의 합은 5로 평균순위의 차이를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접근시킨 결과 유의확률은 .001로 나타났다. 즉, 인지행동 프로그램 역시 ADHD 증상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은 ADHD의 증상 감소를 보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수 기법으로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에서 증상 감소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38)=.06, p=ns$).

논 의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기반하여 ADHD

아동의 문제행동을 “창의성”이라는 강점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로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위해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ADHD 아동에게 실시한 결과,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교집단에 비해 창의성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에서 창의성의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 즉,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은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비해 ADHD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하위 요소인 창의적 사고, 성격, 동기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단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결과는 창의성은 변화하기 어려운 안정된 특성이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지한다(권석만, 2008). 또한 지속적으로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단기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은 훈련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Nickerson, 1999; Parnes, 1963). 예를 들면, ‘창의성을 발휘해보라’는 간단한 지시만으로 과제에 대한 반응이 풍부해질 수 있으며 시간적 제약의 압박, 계속적인 감독, 비판적인 판단이 주어지면 창의성은 저하될 수 있다(권석만, 2008).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사고뿐만 아니라 창의적 성격 및 동기도 증진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창의적 사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보다는 창의적 성격 및 동기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창의성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권석만, 2008).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인지행동 프로그램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보다 유의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문제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ADHD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히려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ra, 2005).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본 프로그램에서는 ADHD 아동에게 진단명을 붙여 아동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반해, 창의성이라는 강점 증진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동시에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창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도 유의미하게 증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에 비교적 일관되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배진수, 이영만, 2000; 성은현, 2005; Cropley, 2001; Piitro, 1998). 다만,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중 무엇이 선행 요인인지는 본 연구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밝히는 연구(김민정, 2000; Sternberg & Williams, 1996)와 창의성 증진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김은아, 2005; 배진수, 이영만,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와 장면에 도전하는 것을 도우며 이는 성공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의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일수록 다양한 과제에서 성공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2006; 정진영, 2012)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

력을 스스로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결과(Bandura, 1997; Daugherty & Logan, 1995)에 따라 창의성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이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비해 ADHD 문제 개선에 더욱 효과적인가를 분석한 결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교집단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ADHD의 문제 개선에 대한 효과성이 다년간 증명된 치료 기법으로서(Steven & Susan, 2008), ADHD의 증거기반 치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치료 타당성이 증명된 인지행동과 비교해 볼 때 창의성 프로그램 역시 ADHD 문제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본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증상 감소에 초점을 둔 기존의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강점 증진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에서 그에 준하는 문제 개선 효과가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ADHD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키며 문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DHD 문제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Metcalf, 1999). 특히, ADHD 아동의 강점으로 창의성을 보고한 선행연구(Cramond, 1995, Guenther, 1995, Leroux, & Levitt-Perlam, 2000)와 창의적인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동의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한다(Lara, 2005). 최수경(2006)과 이영나(2006)의 연구에서도 ADHD 아동이 적극적이며 열성적이고 새롭고 재미있는 일에 도전하는 성향과 독특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이는 문제해결의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증상 감소 위주의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ADHD의 긍정적인 측면을 탐색하여 창의성이라는 강점을 강화하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기존의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의 접근법도 ADHD의 증상 감소에 영향을 주며, 본 연구의 비교집단 역시 아동의 문제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들은 ADHD의 문제가 되는 증상을 감소해야 한다는 시점, 즉, 아동의 문제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이들의 관점과 차별적으로 긍정심리학적 조망에서 ADHD 아동의 부정성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긍정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연구를 진행했는데 의의가 있다. 실제 프로그램 과정 중 아동들의 질적 응답을 분석해 보면 ADHD 문제에 대해 “산괴(산만한 괴물)”, “꾸뽕(꾸질한 뽕구뽕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분리시키는 활동을 통해 ADHD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활동 후반에서는 아동들이 ‘나는 내 산괴와 떨어질 수 있다’, ‘나는 꾸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효능감이 증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준 실험 설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비교집단으로 ADHD 문제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두 처치 간의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ADHD 문제 감소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

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셋째, 창의성을 단일 요소가 아닌 다양한 요소들의 통합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창의적 성격, 사고, 동기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Perkins(1986)는 기존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들이 창의적 사고에만 초점을 두거나 창의적 성격, 창의적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며, Amabile(1983), Csiksenmihalyi (1988), Sternberg와 Lubart(1993), Williams(1980)은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개인이 속한 환경적 차원 등의 다양한 차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창의성의 요인을 고려하고 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의의가 있다.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하고, 창의적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보다 여러 영역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창의성 개발에 더 유용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고력'과 '지식'에 초점을 두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이 아닌, 성격, 사고, 동기 등의 창의성의 핵심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흐름을 따랐다. 이는 창의성 연구의 새로운 추세 중 하나인 실제적인 맥락 하에서 발생하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Amabile, 1983; Besemer & O'Quin, 1986; Sternberg & Lubart, 1996).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프로그램 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선발할 때 무선험당을 시행하지 못했다. 각각의 기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프로그램을 신청하였으며 각 기관의 요구사항(장소, 시간)이 서로 달랐다. 또한 ADHD로 진단된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했기에 무선험당을 통해 참여자를 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동일한 지역에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처치 시점과 성별 비율은 통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적 관계나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 등의 가외변수에 대해서도 측정하지 못하였고 통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에 미치는 가외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변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중맹검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 모두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프로그램 진행 및 참여를 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진행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후에 좋은 평가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지행동을 실시한 집단을 구성하고 이와 비교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실험 절차를 통해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연구자가 직접 처치 프로그램과 비교 프로그램을 주진행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의 의도가 결과에 미쳤을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할 시, 연구자와 프로그

램 진행자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창의성 증진을 통한 ADHD 문제 개선 및 자기효능감 증진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의 한계로 인해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추후검사를 통해 창의성 증진이 ADHD의 증상 감소나 자기 효능감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민정 (2000). 초등학생의 통제소재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과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년, 김형인, 조수철, 신민섭 (2012). 12주 OROS-Methylphenidate 약물 치료 후 ADHD 아동의 삶의 질 변화.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3(3). 103-108.
- 김은아 (2005). 아동의 내적 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아, 정옥분, 정순화 (2007). 아동의 내적 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8(2), 23-47.
- 박종규, 오경자 (2004). 아동의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인지행동적 부모훈련과 행동적 부모훈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829-849
- 배진수, 이영만 (2000).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창의력 성격과 창의성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3(2), 5-29
-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675-693
- 성은현 (2005). 자아존중감,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1), 1-12.
- 신현균 (2012). 학교장면의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우울 취약성 감소와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687-711
- 심혜숙, 박정미 (2003). 창조적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05-527
- 안상일 (2004). 창의성 사고와 성향을 통합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복, 이상훈, 이호신 (199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행동지도 방법,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이영나 (2006). ADHD 성향 아동의 창의성과 자기유능감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이해련 (1989).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 평가 도구로서의 conners 평가 척도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8. 135-142.
- 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2006).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3(1), 35-60.
- 정진희 (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과

- 일반 아동의 창의성과 어머니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최수경 (200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창의적 인지능력과 창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인수, (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 일반, 17(1), 25-47.
- 최인수, 이종구. (2004). 창의성 검사, 창의성 계발을 위한 창의성 검사의 이해와 활용. 한국가이던스.
- 한혜진 (2002). 자기주장훈련이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braham, A., Windmann, S., Siefen, R., Daum, I., & Güntürkün, O. (2006). Creative thinking in adolescents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Child Neuropsychology*, 12, 111-123.
-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um, S. M., & Olenchak, F. R. (2002). The alphabet children: GT, ADHD, and more. *Exceptionality*, 10, 77-91.
- Bloom B, Cohen RA, Freeman G. (2011). Summary health statistics for U.S. children: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2010. *Vital Health Stat 10*. 2011 Dec(250):1-80.
- Cramond, B.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LA, April 4-8.
- Cramond, B. (1995). The Coincidence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Creativity. (RBDM 9508).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Center on the Gifted* 1(1). 123-135.
- Cropley, A. J. (2001). *Creativity in Education & Learning*, UK. Kogan page.
- Csikszentmihalyi, M. (1988).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 F.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325-339).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s, G. (1998). *Creativity is Forever*.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Daugherty, M., & Logan, J. (1995). Private speech assesment: a medium for studying the cognitive process of young creative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15, 5-17.
- Gilman, R., Huebner, E. S., & Furlong, M. J. (2009).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Schools*. Routledge.
- Guenther, A. (1995). *What Educators and Parents Need to Know about ADHD. Creativity and Gifted Students (Practitioners' Guide A9814)*. Storrs: The National Centre on the Gifted and Talented University of Connecticut.
- Honos-Webb, L. (2005). *The Gift of ADHD: How to Transform Your Child's Problems into Strengths*. Oakland, CA: New Harbinger.
- Honos-Webb (2011). ADHD 아동의 문제를 강점으로 바꾸는 101가지 방법(변명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Lara, H. W. (2005). *The Gift of ADHD*. New Harbinger Publications.
- Leroux, J. A., & Levitt-Perlam, M. (2000). The gifted child with attention deficit disorder. An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challenge. *Roper Review*, 22, 171-176.
- McDermott, S. P. (2000). Cognitive therapy of adul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T. Brown (Ed.), *Attention Deficit Disorders and Comorbidity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Metcalf, K. (1999). Williams syndrome: an update on clinical and molecular aspect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81: 198-200.
- Nickerson, R. S. (1999). Enhancing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s.), *Handbook of creativity* (392-43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elsen, M. E. (2002). Gifted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Recommendations for identification and programming. *Exceptionality*, 10, 93-111.
- Nielsen, M. E., & Higgins, L. D. (2005). The eye of the storm: Services and programs for twice-exceptional learner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8, 8-15.
- Parnes, S. J. (1963). The deferment of judgment principle: Clarification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Reports*, 12, 521-522.
- Perkiins, D. N., & Laserna, C. (1986). Inventive thinking. In M. J. Adams (Coordinator), *Odyssey: A Curriculum for Thinking*. Watertown, MA; Mastery Education Cooperation.
- Piirto, J. (1998). *Understanding those who create*. Gifted Psychology Press, Inc.
- Reis, S. M., & Ruban, L. M. (2005). Services and programs for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ory Into Practice*, 44, 148-149.
- Steven A. S., Susan S., Carol A. P., Michael W. O. (2013). *성인 ADHD 인지행동 프로그램* (이성직 역). 서울: 학지사.
- Sternberg, R. J. & Lubart, T. I. (1996). Investing in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1(7), 677-688.
- Sternberg, R. J., & Williams, W. M. (1996). *How to Develop Student Creativity*.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Weiss, L. (1997). *ADD and Creativity*. New York: Taylor Trade Publishing.
- White, M., & Epston, D.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W. W. Norton.
- Williams, F. (1980). *Creativity Assessment Packet (CAP)*. Buffalo, N: D. O. K. Publishers, Inc.

1차원고접수 : 2014.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5. 09. 25.
최종게재결정 : 2015. 10. 27.

The Pilot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Creativity Promo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ADHD

Hye Young Choi¹⁾

Sook Hee Im²⁾

Kyo Heon Kim¹⁾

¹⁾Dep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Konyang Cyber University

This is the pilot study for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draw and promote creativity with unique strengths of children with ADHD, by taking a view of their problem behaviors through the positive psychologic approach. A program that can promote creative personality, thought and motiv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trength development technique and narrative therapy. The creativity promotion program (n=21) and cognitive behavior program(n=20) were carried out targeting 41 children with ADHD in D City, Korea; after 8 sessions of those programs, levels of creativity and self-efficacy improvement and ADHD symptom reduc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covariance analysis, the group to which the creativity promotion program had been carried out showed mo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creativity and self-efficacy than the group of the cognitive behavior program;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ADHD symptom. Lastly,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result and the follow-up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reativity, Creativity Promotion Program, Children with ADHD, Self-efficacy